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배포) 2017.10.16(월)  
14:00

**10월 16일(월) 16: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창식, 사무관 신민철  
(044-200-2135)

##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스·불가리아 공식방문(10.22~26)

- △ 6.25 참전국이고 우방인 그리스 방문을 통해 해운·조선, 교통·인프라, 전자정부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
- △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지를 천명
- △ 남동유럽의 주요국인 불가리아 방문을 통해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 심화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모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22(일)~26(목)간 총리 취임 후 첫 순방행사로 그리스 및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 ※ 그리스는 동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해운 강국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
- ※ 불가리아는 EU의 신흥시장이자, 협력 잠재력이 높은 남동부 유럽의 주요국으로, 2015.5월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이 총리의 그리스 방문은 1961년 한-그리스 수교 이래 국무총리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며, 10.22(일)~24(화)간 공식방문 기간 중 △파블로풀로스 대통령 예방, △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 △한-그리스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올림피아市)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해운·조선, 교통·인프라, 전자정부, 농업,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 참석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바흐 IOC 위원장을 위시하여 성화 채화행사에 참석한 국가의 올림픽 위원장들을 만나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10.24(화)~26(목)간 불가리아 공식방문 기간 중에는 △라데프 대통령 예방, △보리소프 총리와의 회담, △글라브체프 국회의장 주최 만찬과 함께 △「한-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보리소프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미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진출한 태양광·유기농 분야 사업의 원활한 이행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ICT, 전자정부, 농업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신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한-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 참석하여 상공회의소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기업인들 간에 협력이 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 한-불가리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양국 기업인들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이 총리의 이번 순방은 △6.25전쟁 참전국이며 전통 우방인 그리스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성화 채화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불가리아와의 협력에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